

양돈사육규모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제언

다 다 상 사
대표 김 정 웅

1989년은 우리사회가 자기몫을 찾기 위해 양심이나 사회정의 따위는 내팽개치고 수많은 이해집단이 시위와 폭력, 혼란과 반목을 야기시킨 시련의 해였다. 전국의 거의 모든 기업과 단체가 파업, 시위, 테러등으로 혼역을 치루었다.

우리 양돈산업도 '89년의 불황가운데 마치 불황이 기업양돈장들의 증산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기업양돈장의 타도에 열을 올렸던 한해였다. 양돈업계에 종사하지만 양돈을 직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비친, 생산자단체의 이「운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운동」도 일종의 자기몫찾기 운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실제 그 내용은 「못가진자」가 「가진자」에 대한 운동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가진자」가 「못가진자」를 등에 업고 「많이 가진자」를 매도하는 눈꼴사나운 운동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육규모간의 반목과 갈등은 대기업자본으로 하여금 농가소득원으로 육성되어야 할 양돈업에 투자를 못하게 썩기를 막는 효과는 있었으나 모돈 500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양돈업을 중단한 기업까지도 생겼다. 이같은 사육규모간의 반목을 행정부가 적절히 중재를 서서 해소해야 하며, 학계도 양돈산업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사육규모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을 적극 권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집 불구경 하듯 했다.

한마디로 이「운동」은 득(得)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양돈산업발전에 크나큰 실(失)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실(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는 산업발전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업양돈가들의 투자여욕을 크게 상실케 한 것이다. 앞으로 자세히 제안하겠지만,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양돈가들이 생산성 향상, 생산원가절감, 육질개선, 나아가 유통가공 분야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해줘야 그결과 각종 기술경영정보나 사육규모가 작은 양돈농가들에게 파

급되어 갈 것이고, 수직 또는 수평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도축장의 시설근대화 및 등급제도의 현대화가 일어날 것이고 육가공 및 정육유통업에 까지도 투자할 것이며 나아가 수출산업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기업양돈가들이 투자여욕을 상실하면서 두뇌인력의 설 땅이 없어졌거나 좁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나마 근무하던 두뇌인력도 사료업계나 타업계로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돌아오거나, 새로운 두뇌인력이 양돈업계로 들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대부분 오지 근무이고 현장내의 사택에서 살아야 하고 작업환경도 나빠서, 일반 돼지 사육근로자조차도 양돈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주가 상당한 대우와 이런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않고서는 두뇌인력이 유입되기는 기대난이다. 두뇌인력없이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향상화하 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선진양돈국들로부터 기술과 필요한 장비, 기구, 종돈등을 수입해서 우리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며 사료업계와 동물수의약품업계와 협력도 해야 경제적 사료요구율이나 돈군건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돼지 생산성면에서는 유럽의 양돈선진국에 비해 앞으로 10년은 걸려야 따라 잡을까 말까하는 수준에 있는 우리 양돈업의 기술수준은 농촌진흥청의 시험장과 지도국이 맡아서 항상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립종축원이나 도종축장이 우리 시장에 맞고 우리 사육환경에 맞는 우수 종자돈을 공급할 수 있을까?

결국 민간기업의 두뇌인력들이 민간기업양돈장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당면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우 다행한 것은 축협중앙회가 종돈사업소에 3년전에 중핵돈군을 수입하여 육종사업을 시작했으며 아울러 대단위 인테그레이션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양돈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어진다.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한번쯤 같이 생각해보고 각자가 맡아야할 기능과 역할을 연구해보므로써 안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밖으로는 수출을 신장시켜 『우루과이라운드』 따위는 걱정조차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나아가 남북통일이 오는날 수출물량을 좀 줄여서 북한의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돈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물량적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표 1) 돈육수급전망을 근거로 (표 2) 돼지 상시사육두수를 예상해보면 2001년에가면 거의 1천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게 된다. 모돈수로 추정해보면 110만두수에서 120만두를 상시 사육하게 되는데 이수치는 지금의 2배에 가까운 마리수다.

(표 1) 돈육 수급 전망

연도 구분	1988	1991	1996	2001
1인연간 수요 kg	10.1	12.3	15.0	19.6
총 연 간 수요 %	425,000	531,000	679,000	925,000

정부의 2,001년도 돈육수요예측은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10년내

에 선진국의 오늘날 수준까지 육박한다면 우리나라

(표 2) 돼지 상시사육두수 전망

연도 구분	1988	1991	1996	2001
돼 지 (1,000두단위)	4,852	6,040	7,395	9,422
농가호수(호)	261,000	—	—	108,000
호당두수(두)	18.6	—	—	87
모돈두수(두)	726,000	—	—	—

민의 돈육소비량은 정부의 예측치를 훨씬 초과할 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를 (표 4)의 주요국별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과 (표 5)의 한국인 축산물 연간 1인당 소비량예측을 비교해보면 예측할 수 있다. 우리소득수준보다 크게 높지않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등의 1977년도 육류소비량과 비교해볼때 2,001년의 우리의 육류소비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되는데, 따라서 설령 우리의 생활구조가 육류중심이 아니고 체중도 그들보다 가볍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육류소비량예측치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특히 쇠고기 절대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육류생산능력을 감안할때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1년에 가서 20kg을 훨씬 넘어갈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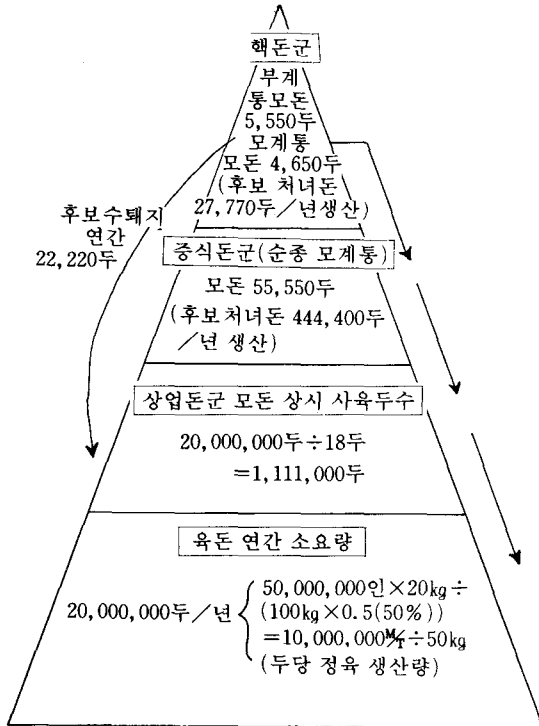
(표 4) 주요 (EEC) 국별 축산물 연간 1인당 소비량

육류별 연도별 국가별	돼지고기(kg)			쇠고기(kg)			닭고기(kg)		
	1977	1981	1988	1977	1981	1988	1977	1981	1988
서 독	52.6	57.9	62.1	23.7	22.9	23.5	9.2	9.7	11.2
프 랑 스	35.6	39.4	37.7	31.4	31.7	30.3	15.1	16.6	19.3
이 태 리	20.3	24.2	29.8	24.7	25.5	26.6	16.7	18.1	19.1
화 란	35.3	41.7	46.5	22.6	20.2	19.3	7.4	9.5	16.7
벨지움(룩스)	36.7	41.2	47.0	28.8	26.7	21.9	11.1	13.2	16.5
영 국	24.8	25.9	24.9	23.6	22.6	21.5	11.5	13.4	19.4
아 일 랜 드	27.2	32.5	34.2	23.5	26.4	19.2	12.5	14.2	20.9
덴 마 크	41.7	50.6	65.9	15.3	13.7	17.0	8.3	8.6	11.7
그 리 스	15.1	18.8	24.6	24.2	16.6	19.0	12.5	14.9	15.5
스 페 인	20.4	27.2	44.6	13.0	12.0	11.4	20.3	23.7	21.9
포 르 투 갈	16.1	19.1	24.3	14.5	12.4	13.3	14.1	16.9	17.0
EEC 평균	27.15	—	39.7	20.44	—	22.6	12.63	—	17.6

(표 5) 한국 축산물 장기 수급전망
(1인당 연간 소비량 kg)

연도별 육류별	1988	1991	1996	2001
쇠고기	3.4	3.8	4.6	5.7
돼지고기	10.1	12.3	15.0	19.6
닭고기	3.5	4.2	5.2	6.6
육류계	17.0	20.0	24.2	31.0

(그림 1) 2000년 양돈산업구조 전망



예측에 사용된 산출근거

1. 인구 50,000,000
2. 1인 연간 정육(돼지고기)소비량 : 20kg
3. 돼지규격 : 생체중 100kg (덴마크 57.86) 정육률 50%
4. 연간 모돈당 출하두수 : 18두
5. GGP 모돈의 GP 후보처녀돈 연간 생산두수 : 6두(모계통), 4두(부계통)
6. GP 모돈의 PS 후보처녀돈 연간 생산두수 : 8두
7. 상업돈군 모돈의 연간 대체율(보충률) : 40%

여하튼 정부의 돈육수급전망을 근거있는 것으로 보고 2,000년도의 우리나라 양돈산업구조를 현대화된 선진국구조를 모방해서 만들어 보면 (그림 1) 과 같다.

만약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8천만이 예상되는데 북한에 어느정도의 양돈산업이 그때까지 발달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돈산업구조는 그 규모면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양돈산업은 물량면에서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표 3)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및 사육두수분포(1988년)를 2,001년에 가서 어떤 분포로 변천시켜야만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도 하고 그리고 양돈업이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남도록 되느냐 하는 것이다.

(표 3)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및 사육두수분포(1988년말)

구분	구분	1~19	20~99	100~499	500~999	1,000~4,999	5,000~9,999	10,000 이상	계
양돈농가호수		226,000	27,000	6,802	730	265	32	9	261,000
구성비%		86.59	10.35	2.6	0.28	0.12			100.0
사육두수 (1,000두)		751	1,167	1,502	481	526	231	194	4,852
구성비%		15.18	24.05	30.95	9.91	19.60			100.0
평균사육두수		3.32두	43.22	220.82	658.30	1,985.7	2,119.21	21,555	18.6

유럽 EEC 국가중에서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킨 나라들의 양돈산업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수출국은 (표 6)에서 네델란드, 벨지움/룩셈블그, 덴마크이며 아일랜드도 약간 수출하고 있다.

(표 6) EEC 회원국 돈육 자급도(%)

국가별	연도별	1975	1980	1985	1988
서독		86.6	87.5	86.0	85.1
불란서		84.9	81.7	80.6	84.4
이태리		73.6	70.8	70.6	67.4
네델란드		205.0	240.0	271.6	278.4
벨지움/룩셈블그		174.6	160.1	143.8	167.2
영국		62.8	64.7	70.7	71.8
아일랜드		122.4	132.7	115.3	116.6
덴마크		379.5	351.8	374.8	345.9
그리스		93.9	92.3	69.5	74.1
스페인		-	-	98.8	97.9
포르투갈		-	-	92.1	90.4
EEC (10)		98.9	100.4		
EEC (12)		-	-	102.2	103.3

이들 EEC 회원국중 돈육수출국의 사육규모별 농가구성비와 돼지사육두수 구성비를 보면(표 7참조), 사육규모가 400두 이상의 농가구성비가 화란(네델란드)이 32.2%, 벨지움/룩셈블그가 15.1%, 덴마크 19.1%, 아일랜드가 8.4%이나 사육두수구성비는 400두 이상의 농가가 화란이 76.

5%, 벨지움/룩셈블그가 66.1%, 덴마크 66.1%이고 아일랜드는 89.3%이다. 그리고 돈육수급의 자금도가 낮은 나라들도 대체로 사육규모가 큰 농가들이 전체사육두수의 대부분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1987년 유럽공동체 (EEC) 돼지사육규모별 농가 구성비 및 돼지사육두수 구성비

구분 \ 규모(두)	1-9	10-49	50-199	200-399	400-999	1000두이상	계(%)
농가 구성비							
서독	47.7	26.9	16.9	5.0	3.3	0.2	100
프랑스	77.4	8.2	5.8	3.5	3.9	1.2	100
이태리	91.2	6.4	1.1	0.4	0.5	0.4	100
화란	5.4	10.7	31.9	19.5	22.0	10.2	100
벨지움 / LUX	24.4	21.1	26.5	13.3	11.5	3.6	100
영국	24.6	25.6	17.9	10.1	11.1	10.6	100
아일랜드	56.3	25.0	6.3	2.1	4.2	4.2	100
덴마크	9.0	25.7	31.6	14.6	14.6	4.5	100
그리스	87.1	7.7	3.6	0.5	0.5	0.4	100
스페인	64.9	23.6	6.3	2.1	2.2	0.8	100
포르투갈	90.6	7.3	1.5	0.3	0.2	0.1	100
계	70.3	15.3	7.8	2.9	2.7	0.9	100
사육두수 구성비							
서독	2.7	10.3	27.2	22.7	31.5	5.6	100
프랑스	2.7	3.0	10.1	16.2	37.6	30.4	100
이태리	10.4	6.0	5.2	6.6	18.0	53.8	100
화란	0.1	0.8	9.1	13.7	34.9	41.5	100
벨지움 / LUX	0.4	2.6	13.6	17.4	33.9	32.2	100
영국	0.2	1.6	4.9	7.4	19.3	66.5	100
아일랜드	0.7	2.9	3.4	3.7	11.4	77.9	100
덴마크	0.2	2.8	13.7	16.9	36.5	29.9	100
그리스	7.5	9.0	15.0	7.4	19.9	41.2	100
스페인	3.6	9.7	13.5	12.4	28.2	32.6	100
포르투갈	20.8	14.2	15.9	7.9	12.0	29.1	100
계	3.1	5.9	14.3	15.0	29.8	31.9	100

주(註) : 아래줄친 나라들이 돈육자금도 100%이상인 수출국들임

세계에서 최대의 돈육수출국인 덴마크의 양돈산업구조변천을 보면(표 8참조) 지난 20년 동안에 사육규모 500두 이상의 농가수도 1970년의 2.1%에

서 1989년의 23.5%로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육하는 마리수도(1970년의 16.6%에서 1989년의 79.7%로) 크게 증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덴마크 양돈산업구조 변천

연 도	생 산 자 수	구 성 비 %	사 육 두 수	구 성 비 %
1970				
200 두 이하	85,547	86.5	4,654,771	48.8
201 ~ 500	11,306	11.4	3,299,091	34.6
501 ~ 1,000	1,759	2.1	1,173,959	16.6
1,001 ~ 2,000	267		331,532	
2,001 이상	30		81,051	
계	98,909 호	100.0 %	9,540,404	100.0 %
1980				
200 두 이하	51,607	74.9	2,733,507	20.7
201 ~ 500	10,479	15.2	3,402,111	25.8
501 ~ 1,000	4,507	9.9	3,240,785	53.5
1,001 ~ 2,000	1,924		2,636,171	
2,001 ~ 3,000	303		727,778	
3,001 ~ 4,000	72		250,564	
4,000 두 이상	37		202,024	
계	68,929 호	100.0 %	13,192,940	100.0 %
1989				
200 이하	21,256	60.2	1,170,303	7.9
201 ~ 500	5,740	16.3	1,847,352	12.4
501 ~ 1,000	3,845	19.2	2,760,022	46.2
1,001 ~ 2,000	2,927		4,105,536	
2,001 ~ 3,000	910		2,184,071	
3,001 ~ 4,000	343	4.3	1,152,819	33.5
4,001 ~ 5,000	133		590,930	
5,001 ~ 10,000	140		920,446	
10,001 두 이상	9		120,012	
계	35,303 호	100.0 %	14,851,491	100.0 %

덴마크 총농가호수 대 양돈농가호수 변천

연 도 별 구 분	1968	1976	1982	1989
총 농 가 호 수 (A)	161,142	125,937	112,397	81,223
양돈농가호수 (B)	130,098	83,746	57,153	31,556
B / A 구성비	80.73%	66.50 %	50.85 %	38.85 %

한편 덴마크의 1989년도의 돼지고기 이용현황을 보면(표 9참조) 연간 총생산비육돈 1600만두중에서 79.5%가 일차 및 이차가공품으로 수출되고 있

으며 국내소비는 20.5%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수출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요소는 산업전체가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 있다.

(표 9) 덴마크 돼지고기 이용현황

시장별	이용형태 구분	1988		1989	
		1000두	%	1000두	%
수출수요	배 이 콘 류	2,211	13.7	2,353	14.8
	지 육	104	0.6	85	0.5
	부 분 육	7,574	47.1	7,426	46.9
	통 조 립 류	2,524	15.7	2,416	15.2
	기 타 가 공 육	329	2.0	326	2.1
	계	12,742	79.1	12,606	79.5
국내수요 1)	폐 기	3,247	20.2	3,154	19.9
		106	0.7	94	0.6
	합계	16,095	100.0%	15,854	100.0%

1) 국내수요 통계자료는 농가자자도살두수는 포함 안됨.

덴마크뿐만 아니라, 돈육수출국들의 공통된 점은 이들국가들이 모두 덴마크와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핵돈군은 모두 하이브리드종돈을 육종개발하는 기업규모의 종돈육종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고, 증식돈군(순종돈으로 하이브리드번식모돈용 후보치너돈 생산돈군)은 일부 종돈육종회사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사육을 하고 있으며, 증식돈군에서 생산되는 고성능의 하이브리드 치너돈과 수퓌지 (TERMINAL SIRE) 을 일반양돈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종돈육종회사, 사료제조회사, 동물약품회사들이 기술경영지도에 앞장서 왔다. 물론 정부가 기술지도도 했으며, 도체등급제도를 일찍 도입하였고 돈육수급조절에 적극참여하여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주므로써 양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일반 양돈농가들을 부업으로 양돈업을 하는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족노동력중심의 양돈사육규모로 육성해주므로써 협동조합활동에 적극참여토록 유도했고, 이들 전업양돈농가의 구매력을 신장시키므로써, 종돈, 원자재, 시설등을 구매하여 이용하므로써 이들 유관산업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 그결과 더 좋은 상품을 양돈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생산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양돈농가가 영세하여 구매력이 없으면 앞서 말한 유관산업이나 종돈육종회사들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 1인이 관리가능한 사육규모는 모돈기준으로 40~50두이며, 이규모의 양돈농가가 도시근로자의 소득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축산협동조합이 돈육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적정 이윤폭을 보장하는 수준에서)을 시켜만 준다면 생산효율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 1인당 돈육소비량이 20~25kg까지 증가하는 향후 10년동안에 정부의 각종 양돈농가 지원책은 전업양돈농가 즉 모돈 40~50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산업이 성장하는 기간중 보다 많은 양돈농가가 전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결과 양돈업이 많은 농가의 소득원으로 남게 될것이다. 모돈기준 100~150두 이상의 양돈농가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규제를 가해 규모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만, 지금 영세한 양돈농가들이 전업농가의 사육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이다. 이미 모돈 100~15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들은 앞으로 고임금의 고용노동력을 가지고 비육돈생산을 해서도 별로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생산량 증가보다는 생산효율을 높혀 단위수익성을 개선토록 해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게 될 것이다.

선진양돈국들의 농가들은 모돈 100~150두규모의 일관생산체제를 기계화 자동화 해서 부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실속있는 적정 사육규모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육규모가 모돈 500두이상인 양돈업체들중에서 두뇌인력이 확보된 업체들은, 이미 몇몇농장들이 하고있는 종돈육종 사업을, 하는것이 부가가치도 높고 전업 또는 부업 양돈농가에게 종돈공급과 기술지도도 해 주게 되므로 상호협력관계를 이루게 된다. 사육규모가 큰 농장과 작은농장간의 갈등 반목도 서로 역할 및 기능 분담을 하므로써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 기업양돈업체들이 종돈 육종사업이나, 도축사업, 돈육유통가공업에 진출하지 않고 영세한 양돈농가들과 돈육시장에서 심한 경쟁을 벌린다면, 못가진자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산업사회의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가지 우리 기업양돈업체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앞서 언급한 사업분야에 투자와 연구개발을 게을리 한다면, 시장개방과 동시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시장을 통채로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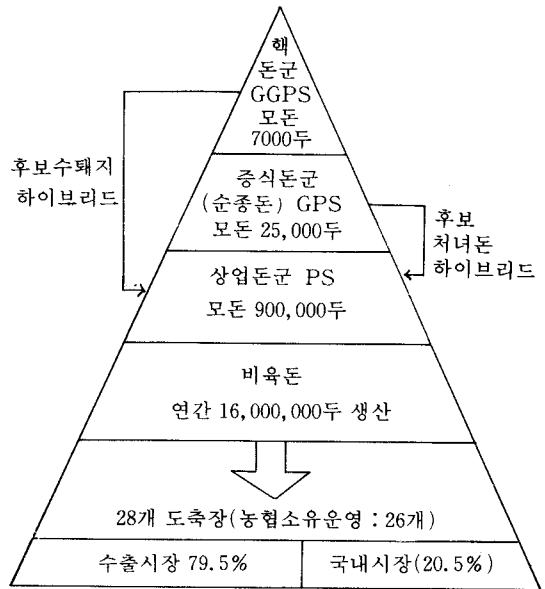
요약하면 양돈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져야 하는데 구매력이 있고 생산효율이 높은 하부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생산자단체와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산업발전모델을 설정하여 양돈농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동안에 하부구조를 이루는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가족노동력만으로 관리가능한 사육규모인 모돈기준 50~100두정도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기간중 돈육소비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생산능력증가분을 계획적으로 모돈기준 50~100두 이하의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갖도록 제도적장치를 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기업양돈업체들은 2000년도에 필요한 핵돈 약 1만두와 증식돈 6만두를 사육해서 하이브리드 처너돈과 웅돈을 개발 공급하는 종자업체로 변신해야만 부가가치도 제고될 것이고 가진자로서 산업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사(自社)의 하이브리드 처너돈과 종모돈돈을 사주는 전업 및 부업양돈농가들의 생산효율증대와 수익성개선을 위해 기술경영지도를 해주고 나아가 이들 고객농가의 규격육돈을 적정가격에 사서 도축·가공·유통해주므로써 1989년에 있었던 사육규모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양돈산업의 경

(그림 2) 1989년 덴마크 양돈산업 구조 (1989년도)



쟁력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가진자가 “못가진자”와 “덜가진자”를 도울 때 우리사회는 진정한 민주자본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바탕위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의 공산주의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8000만의 인구를 가진 대경제국으로 성장하는 날, 어느시인이 말했듯이 우리의 조국이 동방의 햇불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